

'Blow Up'

Jean-Luc Maslin(전 주한프랑스문화원장)

번역 : 신은실

고전 미술에 영향을 받았으며, 자신의 작품 속에서 형상을 몽롱하게 연출하는 것이 장기인 오용석은, 서사를 들려주는 화자이기보다는 이미지의 창작자에 가까워 보인다. 이것이 갤러리정미소에서 그가 소개하는 작품들의 장점이기도 하다.

바슬라프 니진스키(1890-1950), 엘리자베스 쇼츠(1924-1947), 그리고 조이 스테파노(1968-1994)를 잇는 고리는 무엇일까? 니진스키는 디아길레프가 창단한 '발레뤼스' 무용단의 가장 각광받는 무용수였으며, 출연 때마다 벨 에포크 시대의 관객들을 홀릴 정도로 탁월한 배역 해석으로 무용 예술을 혁신한 천재적인 연기자였다. 쇼츠는 다른 불나방들처럼 할리우드의 영사기에 이끌려 영광을 꿈꾸는 물결에 합류한 가없는 배우 지망생이었으며, 뽀얀 얼굴과 흑단 같은 검은 머리를 지녀 '블랙 달리아'라고 불렸던 미인이었다. 본명이 니컬러스 엔터니 야코나였던 스테파노는, 80년대 게이 포르노 영화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였다.

이 세 사람 모두 아버지 없이 불안정한 어머니 아래서 힘겨운 성장기를 보내야 했다. 그들은 정에 굶주렸으며, 관능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덕였다. 성공하겠다는 강박관념과 도발하고픈 욕구도 그들의 사춘기를 힘겹게 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보다 극적인 그들의 삶이었다. 광기가 니진스키의 삶의 줄을 갑자기 끊어놓았고, 쇼츠는 끔찍하고 잔인한 폭력에 살해당했으며,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알았던 스테파노는 약물 중독으로 죽었다. 그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비극적인 운명들은 엄청난 열정과 창의성을 계속 양산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연출가, 시인, 그리고 소설가들의 영감의 근원인 그들의 이미지는 언제나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교환되고 저장되고 있다. <신의 광대>에서 어두운 색 타이즈 차림으로, 혹은 <목신의 오후>에서 희고 혈렁한 의상을 입고 허공으로 뛰어 오르는 (니진스키의) 모습, 토막살해되기 전에 웃고 있는 '달리아'의 검은 입술, 그리고 삶에 이미 지친 젊은 배우의 얼굴 이미지는 체념과 슬픈 아름다움을 가장 하고 있다.

인터넷과 함께 태어난 한국의 첫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 예술가 오용석은 미디어들이 유통시키는 바로 그 사진들의 전사회로 우리를 이끈다. 오용석은 회화와 구도, Blow Up에 대한 자신의 재능으로 그것들을 넘어선 후, 우리의 병적인 열정과 환각 속으로 그 이미지들을 가져온다. '목신' 테마를 둘러싼 동물의 변주, 악(惡)이 토막 낸 꽃 상정의 해부학 퍼즐 맞추기, 자신과 타자들을 이미 체념한 한

남자의 공허하고 노기 어린 눈빛에 동반되는 물리적, 신체적 해체.

어떤 쓰라린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해도, 폭력을 동반한 이 부서진 꿈의 재현들은 분명히 오래도록 우리의 탐욕스런 이미지 소비를 채워주면서 계속 출몰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용석이 그린 뒤틀린 신체들과 허연 얼굴의 초상화들은, 죽음이 삶의 중심이며, 프레데릭 엘리에스가 말했듯 누구나 자신의 욕망을 자유로이 피로 쓸 수 있는 공백을 갖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